

红色经典系列
중국당대 장편소설 소장본

청춘의 노래

양말 저
중조·중한번 역센터 역

红色经典系列
중국당대 장편소설 소장본



청춘의 노래

양말 저
중조·중한번역센터 역



홍콩
조선민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青春之歌：朝鲜文 / 杨沫著；中朝、中韩翻译中心译.
哈尔滨：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2008.7
ISBN 978-7-5389-1497-9

I. 青… II. ①杨…②中… III. 长篇小说—中国—当代—
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7.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8）第 105019 号

书 名/ 青春之歌
著 者/ 杨 沫
译 者/ 中朝、中韩翻译中心
责任编辑/ 徐 燕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1-57364224
电子信箱/ hcxmz@126.com
印 刷/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640mm×960mm 1/16
印 张/ 40.5
字 数/ 685 千字
版 次/ 2009 年 10 月第 1 版
印 次/ 2009 年 10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497-9（民文）
定 价/ 42.00 元

출판설명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어서부터 1966년까지 중국의 장편소설 창작과 출판은 하나의 고조를 이루었다. 이 십여년간에 많은 작품이 창작되었고 그 중 수십편의 인기작품들은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런 작품들은 사실주의 창작원칙을 견지하면서 뜨거운 열정과 질박한 표현수법으로 토지혁명전쟁, 항일전쟁, 해방전쟁과 사회주의건설 등 부동한 력사시기 중국인민의 간거하고 탁월한 분투의 과정과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정신적품모를 가송했으며 그 시기 중국 장편소설문학의 최고 성과를 대표하였고 아울러 중국당대문학사상 아주 중요한 한자리를 매김하였다.

이 시기 중국당대 장편소설의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본사에서는 “중국당대 장편소설소장본”시리즈 완역본을 출판하게 되었다.

첫단계 작업으로 “붉은경전소설”중 10부를 완역, 출판한다. “붉은경전소설”이란 모택동주석의 “연안문예좌담회에서 한 연설”정신을 창작지침으로 삼고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진행한 사회정치운동과 보통 공농병생활을 전형화하여 반영한 소설문학을 말한다. 이런 소설들은 영웅서사시적인 거대한 화폭으로 당시의 사회생활을 폭넓게 반영하고있는바 애국주의교육의 좋은 소재로 되고있으며 문학과사 혁명사의 완정성을 기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번 “붉은경전소설” 10부는 인민문학출판사에서 출판한 “중국당대장편소설소장본”을 번역한것이다.

번역, 출판과정중 각고의 노력으로 완미함을 추구하였지만 이런저런 부족점을 피면할수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전문가와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적을 바라마지않는다.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9년 10월

제 1 부

제 1 장

맑은 아침 북평발 심양행 열차는 광활한 벌판을 주름잡으며 동쪽으로 동쪽으로 줄기차게 달리고있었다. 우거진 곡식, 맑은 내물 그리고 누런 토벽집과 전주들이 창가에 기대고앉은 려객들의 눈앞을 확확 스쳐지나갔다.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 려객들은 인젠 창밖을 내다보기도 싫증이 나는지 한 사람 한 사람 고개를 돌려 늘어진 하품을 하는가 하면 어떤 신기한 물건이라도 찾는듯 차간을 둘러보기도 한다. 이윽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자그만 보따리에 쏠리였다. 보따리에는 흰 비단으로 싸 행금, 통소, 피리가 꽂혀있고 그옆에는 비파, 월금, 생황 등 반들반들 윤기가 도는 악기들이 놓여있다. 사람들은 악기장사나 아닌가 해서 보따리임자를 눈여겨보았다. 그러나 그는 장사군이 아니라 열일여덟살의 녀학생이다. 녀학생은 외로이 앉아 그 우아한 악기들을 지키고있었다. 그는 짙막한 흰 치포에다 흰 양말과 흰 운동화를 받쳐 신은데다 손에까지 새하얀 손수건을 쥐고있어 온몸이 백색단장이다. 그는 동행자도 없이 차간 한구석 경석의자에 자리잡은 채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고있다. 창백한 그 얼굴에서는 큼직한 두눈이 류달리 까맣고 맑게 빛났다. 꾸밈새없이 외로이 앉아있는 이 아름다운 처녀는 려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중에서도 남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무어라 수군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녀학생은 아무것도 느끼지도 보지도 못하듯 오래동안 깊은 명상에 잠겨있다.

그의 남다른 기색과 아릿다운 얼굴 그리고 슬한 악기들을 가진 이 기이한 행색은 차간사람들의 의혹을 자아내여 차츰 한가한 화제거리로 되었다.

2 청춘의 노래

“저 처녀 실련한게지?”

양복에 구두를 신은 한 학생이 자기 동료에게 가만히 말했다.
“저놈의 노리개들만 해도 10원, 아니 20원어치는 잘되겠는걸.”

몸집이 뚱뚱한 한 장사군이 남학생곁으로 다가앉으면서 “저렇게 많은 악기를 대관절 뭇에 쓰려나? 광대가 아닐가?” 하고 그 처녀와 악기들을 번갈아 바라보는것이였다.

남학생은 상인을 깔보는 눈초리로 힐끗 쳐다볼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소복단장의 그 녀학생을 슬금슬금 바라보면서 자기 동료들과만 수군거리였다.

렬차가 북대하에 도착하자 녀학생은 혼자 그 악기들을 들고 내렸다. 그의 짐이란 실지 악기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차에 남은 려객들은 의아스럽고 서운한 눈으로 역구내를 걸어나가는 처녀의 뒤모습을 지켜보았다.

자그마한 북대하역은 쓸쓸하였다. 렬차가 도착한 때의 소란도 순간적이었고 기관차에서 내뿜은 흰 연기가 사라지자 정거장은 다시 공허와 적막으로 돌아왔다.

녀학생은 보따리를 들고 정거장을 나와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자기를 마중나온 사람이 안 보이자 곧 샛짐군을 얻어 보따리를 지우고 양장마을을 향해 떠났다. 길을 걸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침울하였다. 머리를 숙인채 말한마디 없이 짐군의 뒤만 따랐다. 굽어든 길목을 돌아서 작은 언덕우에 올라서자 갑자기 쪽빛하늘과 푸른 들판사이에 일망무제한 바다가 펼쳐졌다. 주춤거리던 녀학생의 걸음이 멎었다. 바다를 바라보고 놀라는 그의 맑은 눈에는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야, 야!”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 처녀는 그 자리에 못박힌듯 꼼짝하지 않았다.

“난생 처음 보는 바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는 갈길도 잊고 잔물결이 남실거리는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서있었다.

녀학생의 감정변화를 리해하지 못한 짐군은 곧장 언덕기슭까지 내려갔다. 그는 그제서야 짐주인이 안 보임을 알고 머리를 들어 녀학생이 서있는 언덕우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아가씨, 빨리 가자구요, 왜 안 가슈?”

그러나 녀학생은 여전히 언덕아래 바다물과 그우에 뜬 흰 돛배들을 흘린듯 바라볼뿐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보슈! 아가씨, 대관절 어찌된 일이지요?”

짐군은 속이 달아서 또 한번 언덕우를 향해 소리쳤다. 그제서야 녀학생은 정신을 차린듯 눈을 비비며 방긋 웃고 언덕아래로 뛰어내려왔다.

그들은 다시 같이 걷기 시작하였다.

짐군은 말하기 좋아하는 중년남자였다. 그는 거동이 좀 수상쩍은 이 녀학생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였다.

“아가씨는 언덕에서 뭘 보셨수?”

“바다를 봤어요. 바다는 정말 아름다와요.”

녀학생은 머리를 갸웃하고 말을 이었다.

“여기서 사신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참 아름다운 고장이예요.”

“원, 좋다니요? 고기가 안 잡히면 밥을 먹지 못한답네다. 우린 이 고장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수다.”

짐군은 시물시물 웃으며 다시 물었다.

“저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수? 왜 혼자서 오셨수? 피서하러 오셨는가요?”

녀학생은 짐군을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방그레 웃다가 한참후에야 입을 열었다.

“피서라니요? 아니예요. 외사촌오빠를 찾아오는 길이에요.”

짐군은 눈이 휘둥그래서 다우쳐 물었다.

“외사촌오빠라... 혹시 경찰서에라도 있는건 아니요?”

녀학생은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다.

“아니예요. 우리 외사촌오빠는 양장에서 소학교 교원을 하고있어요.”

“예!” 하고 짐군은 얼른 그 말을 받았다.

“우리 이웃마을 선생님들은 내가 죄다 알고있는데 어느분이신지?”

“장문칭입니다.”

녀학생은 얼굴에 활기를 띠며 천진스럽게 물었다.

“그 선생을 아십니까? 지금도 거기 계신가요? 왜 날 마중나오지 않았을가요?”

짐군은 갑자기 병어리마냥 아무 말도 없었다. 녀학생은 새까맣게 타고 주름이 잡힌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짐군은 입을 꼭 다문채 몇발자국 더 걸어가더니 이번에는 화제를 판데로 돌리는 것이었다.

4 청춘의 노래

“저 미안하지만 아가씨의 이름은 무엇인지요? 북평에서 내려오시는 길 인가요?”

“성은 림가고 이름은 도정이에요. 북평에서 왔어요. 우리 외사촌오빠를 모르세요?” 하고 녀학생은 물었다.

짐군은 말이 없었다. 한참후에 무어라고 중얼거리긴 했으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수 없어서 녀학생도 입을 다물고말았다. 이렇게 그들은 침묵속에서 줄곧 양장소학교 문앞까지 걸어왔다.

짐군이 샛전을 받고 돌아서자 림도정은 학교 정문앞 돌층계를 주춤거리며 올라갔다.

학교는 마을 한옆에 있는 커다란 관제묘에 자리잡고있었다.

림도정은 짐을 절간 문어구에 놓고 사람을 찾으러 안으로 들어갔다. 동쪽채, 서쪽채, 본채, 옆채 매 교실을 다니며 이리저리 찾아보았으나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해변으로들 산보나 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는 절간 문밖 돌층대에서 기다리기 시작하였다.

때는 벌써 해질무렵이라 마을 집집마다에서는 저녁연기가 모락모락 피여오르고있었다. 절간주위의 우거진 수풀속에서는 매미들이 맴맴하고 울어댔다. 도정은 매미우는 소리를 한참 듣고나서 초조하게 사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인기척은 없었다. 그는 짐 옮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짐을 지켜보기만 하였다. 날이 거뭇거뭇해져서야 비로소 한 로인이 다리를 절며 신작로에서 이쪽으로 비척비척 걸어왔다. 로인은 돌층대위에 사람이 서있는것을 보자 멀리서 소리를 질렀다.

“거 누구를 찾수?”

도정은 사람이 온것이 너무 기뻐 다급히 돌층계를 뛰어내려갔다.

“장문청선생이 여기서 글을 가르치고있나요?”

“아, 장선생을 찾수?...” 하고 술이 거나하게 취한 로인은 얼굴이 벌개가지고 허꼬부라진 소리를 했다.

“그인 여기에 없수다.”

도정은 가슴이 덜컥했다.

“그럼 어텔 갔나요? 나한테 편지하길 여름방학에 학교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형님도 여기서 글을 가르치고있었는데...”

“난 모... 모르겠수, 모르겠수다!”

로인은 취기가 올라오는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칠비칠 학교대문안에

들어서더니 짹 하고 그 절간문을 닫아버렸다.

이렇게 되자 림도정은 매우 난처해졌다. 외사촌오빠네가 어데로 갔을까? 그는 자기가 온다는것을 오빠에게 알렸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지금 없으니 오늘밤을 어떻게 지낼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그는 차디찬 돌층계우에 멍청하니 서서 눈앞에 있는 음침한 수풀만 바라보았다. 귀를 찌르는 매미소리는 설새없이 들려왔다. 바다는 보이지 않으나 바위에 부딪치는 파도소리가 적막을 뚫고 단조롭게 들려왔다.

림도정은 힘껏 몇번 두드려보았으나 대문은 종시 열리지 않았다. 로인은 벌써 꿈나라로 들어간 모양이다. 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머금은채 홀로 절간문밖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밝은 달이 떠오른다. 비단결 같은 달빛이 나무잎사이로 스며들어 외로이 서있는 처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쳐준다. 도정은 갑자기 돌층계우에 었드려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사람이란 고통스러울 때면 향유 지난날을 회고하는 법이다. 림도정은 눈물을 흘리면서 추억속에 잠기었다. 왜 아무 친척도 없는 이런 생소한 땅에 혼자 오지 않으면 안되며 무엇때문에 이런 인기척 하나 없는 적막한 밤에 홀로 해변가의 수림속을 방황해야 하는가? 무엇때문에 부모와 고향을 떠나 이런 생소한 곳을 헤매지 않으면 안되며 어째서 이렇듯 슬퍼하며 가슴아프게 울어야 하는가?...

제 2 장

열하성의 어느 궁벽한 산골에 리가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있었다. 그 집에는 할아버지와 손녀 단 둘이 살았다. 할아버지는 이미 늙어 온종일 병석에 누워있었고 손녀 수니가 나무도 하고 농사일도 하여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갔다. 수니는 건강하고 일도 잘하는 어여쁜 처녀였다. 마을총각들은 이 처녀를 자기 안해로 삼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수니는 스물한살이 되도록 아무한테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 사정은 이러하였다. 수니는 열한살때 남의 집 민머느리로 갔다가 열다섯살에 그 “남편”이 죽어 다시 할아버지네 집으로 돌아왔던것이다. 이 혼인은 그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겼고 게다가 늙은 할아버지를 모셔야 하기에 결혼을 서두를 생각이 없었다. 병석에 누워있는 늙은 할아버지

는 손녀의 간호와 부양이 필요했고 또 손녀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사랑하여 딸네 집에서 때론 떡이나 닭알 같은것을 가져오면 언제나 남겨두었다가 손녀에게 주곤 하였다. 손녀가 부치는 땅은 지주의 땅이었다. 소작료를 물고나면 입에 풀칠할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따끈한 죽이나마 대접하려고 농사일외에 틈만 있으면 도끼를 메고 산에 가 나무도 하고 밤에는 등잔밑에서 샴바느질도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순박한 이 처녀를 모두 칭찬하였다. 그야말로 그는 총각들이 꿈속에서 그리는 그런 처녀였다. 스물한살되던 해 겨울, 그에게는 불행이 닥쳐왔다. 북평에 사는 대지주 립백당이 직접 소작료를 받으러 마을에 내려왔다가 수니를 보고 그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당장 그를 첩으로 삼으려 한것이다. 그는 이미 50고개를 넘은 나이면서도 첩을 많이 데리고있었다. 게다가 본처인 서봉영을 시켜 기생집에서 사오게 한 기생까지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수니를 한번 보자 결단코 그냥 놔두려 하지 않았다. 립백당은 소작농들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하여 열하독군(당시 각 성에 두었던 군사장관-역주) 탕옥린의 군경들을 거느리고 와서 소작료를 받아내고있었다. 그러니 연약한 수니와 그의 할아버지가 어찌 이 횡포한 폭력에 대항할수 있으랴! 그리하여 수니는 이 작은 농촌마을의 마름집에서 대지주 립백당의 첩이 되고말았다. 수니는 울기도 했고 죽으려고도 했으며 지어는 립백당의 손가락을 물어뜯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반항은 허사였다. 팔자수염을 비비꼬며 징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덤벼든 립백당은 끝내 수니를 손아귀에 넣었다. 두달후 수니가 애기를 배자 립백당은 북평의 자기 본집으로 그를 데리고갔다. 할아버지는 수니가 마을을 떠난 그날 밤 남몰래 지팡이를 짚고 비칠거리며 백학천으로 나가 강물에 몸을 던지고말았다.

총명하고 령리한 처녀였던 수니는 북평의 립가네 집에 끌려온후부터 바보가 되어버렸다. 그는 온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밥을 먹거나 일할 때를 내놓고는 곧은 눈이 되어 바람벽만 쳐다보고있었다. 서봉영은 수니가 임신한것을 알자 처음에는 그에게 그리 나쁘게 굴지 않았다. 그것은 서봉영이가 여러번 애기를 낳았으나 모두 죽고말았기때문에 수니가 대신 낳아줄것을 바랐던것이다.

수니는 애기를 낳은후부터 얼마간 생기를 띠면서 모든 희망과 사랑을

애기에게 바쳤다. 그는 자기 품에 안긴 살색 희고 포동포동한 계집애가 정말 사랑스러웠다. 해죽해죽 웃는 어린애의 웃음은 수니로 하여금 뼈에 사무친 고통과 치욕적인 생활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게 하였고 그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돈구어주었다. 깊은 밤에 림백당이 다른 첩의 방으로 가게 되면 수니는 살그머니 일어나 어린것에게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젖을 먹이기도 하고 둥그란 귀여운 딸애의 그 작은 얼굴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그리고는 흐느껴 울며 중얼거리곤 하였다.

“아가, 어서 자라라! 응! 엄마는 너를 믿고 살아가련다...”

눈물, 오래전에 말라버렸던 눈물이 어린애의 보드라운 얼굴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그는 어린애를 위해서 살아가고싶었다.

어린애는 첫돌이 지나자 “아- 아-” 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허비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행복의 미소가 어리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서봉영이가 수니를 불러들여 먼저 어린애를 받아안고는 야멸차게 말하는 것이었다.

“애긴 우리 집 주인거야, 애만 남겨두고 당장 나가! 이 럼치없는 거렁뱅이계집!”

수니는 깜짝 놀라 어쩔줄 몰랐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수니는 통곡을 하고 머리를 짓궂으며 어린것을 빼앗으려고 죽을 힘을 다했으나 그것은 허사였다. 수니를 톡막한 림백당은 다른데로 피하고 없었다. “엄마, 엄마!” 하고 어린것은 서봉영의 손아귀에서 조그마한 손을 벌리고 울며 어머니를 찾았다. 그러나 수니는 승냥이 같은 림백당의 하인놈들에게 겨들리어 대문밖에 이미 마련된 자동차로 끌려나갔다.

림백당은 수니의 딸 이름을 도정이라고 지었다. 처음에 림백당부부는 그를 펴 귀여워하였다. 그러나 도정이 세살되던 해에 서봉영이가 아들을 낳게 되자 어린 도정에게도 불행이 닥쳐왔다. 도정은 매일과 같이 매를 맞았고 밤에는 하녀들과 같이 잠을 잤다. 서봉영은 그를 좀처럼 집에 들여놓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온종일 거리에서 석탄부스레기를 쫓는 아이들과 같이 놀았다.

어느해 겨울날이었다. 서봉영은 어찌된 영문인지 한결 반가운 낯색으로 도정을 방으로 불러들이고 말을 꺼냈다. 봉영은 도정이가 우물쭈물 대

답하면서도 연신 몸을 비비꼬는것이 이상스러워 그를 앞으로 잡아당기며 까닭을 물었다.

“가려워…” 하고 일곱살밖에 안되는 아이는 겁에 질려 코를 훌쩍거리며 울상을 했다.

뜻밖에도 서봉영은 크게 자비심을 베풀어 어린 도정의 해어진 솜옷을 벗겼다. 솜옷안에 입은 적삼은 온통 이투성이였다. 이가 너무 득실거려 어떻게 할수가 없었다. 서봉영은 성을 발각 냈으나 이어 선심을 쓰듯이 적삼을 활활 타오르는 빠치까속에 집어넣었다. 툭툭 하는 소리를 내며 해아릴수 없이 많은 이가 적삼과 함께 자취없이 불타버렸다. 서봉영은 더욱 신이 나서 찬바람에 얼어 새빨갳게 된 도정의 얼굴을 자기쪽으로 돌리고는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신문물을 보고있는 림백당에게 얼굴을 돌렸다.

“요새 가만히 보니까 이 계집애가 꽤찮게 생겼어요. 공부를 좀 시켜봅시다. 이다음 자라면 손해볼건 없을테니까.”

림백당은 팔자수염을 비비꼬며 처에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게! 입잔 정말 보는 눈이 다르거든. 하긴 ‘재간없는 녀자가 덕이 있다’는 말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야. 공부를 시켜보는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걸세…”

이리하여 림도정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다. 그는 공부를 즐겼고 꽤 총명하였다. 그러나 도정에게는 꿈한 성질이 있어 온종일 가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병어리로 알 정도였다. 남동생은 어머니를 등대고 노상 그를 때리고 업신여겼다. 그러나 도정은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는 늘 자기를 때리는 동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것이였으나 어떤 때는 성을 발끈 내며 동생을 막 족쳐주기도 하였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보다 몇배 더 무서운 매를 맞아야 했다. 어머니는 매나 몽둥이로 때리는것보다 흔히 손톱으로 꼬집고 이발로 물어뜯곤 하였다. 어느날 밤, 도정이 하녀들의 방에서 자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호된 매로 하여 소스라쳐 깨어났다. 동생이 어머니가 귀해하는 꽃병을 깨뜨리고 그 죄를 도정에게 밀었던것이다. 도정은 그 영문을 인차 알아차리고 이를 악물고 모진 매를 꼭 참았다.

“이 개 같은 년이 점점 배짱이 커가는구나, 당장 병값을 물어내!”

그는 종다리가 꼬집혀 부어오르고 팔뚝이 물어뜯겨 피멍이 졌으나 울

지도 않았고 빌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 한방울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듯 그는 이 집에서 강아지처럼 자라왔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중 다만 늙은 왕어멈만이 그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다. 그러나 서봉영이가 알면 안되기때문에 그는 남몰래 도정을 돌봐주었다. 도정 역시 왕어멈을 따랐다. 배가 고파도 왕어멈, 추위도 왕어멈을 찾아갔다. 눈물도 오직 왕어멈앞에서만 흘렸다.

도정이 고등소학교를 졸업하고 북평 서쪽교외에 있는 서산녀자중학교에 입학한후부터 그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은 도정이 이미 소담하고 아릿다운 소녀로 자랐기때문이었다. 그의 가름하고 흰 얼굴은 투명한 옥같이 맑았다. 길고 새까만 눈썹은 관자노리까지 예쁘게 체를 들렸다. 그보다도 아름다운것은 수심이 어리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의 두눈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말하기를 싫어하고 잘 웃지도 않았다. 혼자 있기를 즐겨하는 그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서봉영은 이런 점에는 무관심하였다. 그에게는 도정의 외모가 어떻게 변하며 어떻게 하면 그가 일정한 학력을 구비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였다. 그것은 당시의 녀성들이 관리나 부자에게 시집가는데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었기때문이다.

개학하는 첫날 부모들은 대문밖에까지 나와 인력거에 오르는 도정을 바래주었다. 비단두루마기를 입은 림백당은 대문밖 대리석층대우에 서서 수업을 매만지며 잠깐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넋지시 웃음을 지으며 인력거에 앉아 막 떠나려는 도정에게 칭찬을 하였다.

“애, 너를 축복한다. 중학교에 입학했다는건 옛날에 급제한거나 같거든! 하하하...”

림백당은 교육가이며 자선가일뿐만 아니라 청나라 향시(지방급 과거시험,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거인이라고 함-역주)에 급제한 이름난 거인이다. 그가 거인이 되어 북평으로 올라와 다시 전시(중앙급 과거시험-역주)를 치르려 할 그때, “강량변법유신”에 뒤따라 북평에 경사대학당(북경대학의 전신)이 생기었다. 이 거인나리는 시대조류에 발맞추어 부인을 데리고와 경사대학당의 “대학사”가 되었다. 중화민국에 이르러 시대조류를 잘 따르는 이 “대학사”는 학교운영으로 부자되는 세월에 발맞추어 이번에는 또 재빨리 교육가가 되었다. 그는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명색으로 청나라 친왕에게서 수많은 “말뼉땅”을 헐값에 사들였다. 이리하여 그는 무술년거

인, 경사대학당 대학사, 민안육아원 원장, 무본대학 학장 등의 직함이 박힌 명함을 가지고 “상류”사회에로 나래를 펴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재능과 덕을 갖춘 림백당교수를 경모하면서도 그가 불쌍한 수니를 어떻게 참혹하게 구박하는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림백당은 《사서오경》을 숙독하였으며 칸트와 몽테스큐도 연구해보았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것은 과거출신의 한림학사였다. 때문에 그는 중학에 입학한 딸을 과거에 급제한것과 꼭같다고 하면서 칭찬한것이다.

도정이 입을 열기전에 서봉영이 먼저 말했다. 피둥피둥 살찐 그는 8월 선거바람속에서도 부채질을 하며 층대우에 서서 눈을 게슴츠레 뜨고 도정을 관상하고있었다.

“애야, 공부를 잘해라! 어머니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 너를 중학과 대학에 보내주마, 앞으로 류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넌 옛날에 장원급제한 사람보다도 더 부귀를 누리게 될게다!”

이렇게 그는 점잖게 말하고는 갑자기 령감에게 얼굴을 돌려 힝 코방귀를 끼며 새쭈웃었다.

“령감은 뭘 헤헤 웃고만 있수? 저 딸은 내가 낳고 내가 키웠수. 재가 벌어들이는 돈은 내거지 령감뭇은 없어유!”

침방울을 뿜기며 말하는 서봉영은 마치도 성난듯했으나 림백당은 도리어 허허허 웃음을 터뜨리고나서 점잖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여보 마누라, 좋수다! 당신거웨다! 모두가 당신거요! 사위가 벌어들 돈두 당신뭇으로 하는게 어떻소?”

열두살난 림도정은 이른바 부모를 아니꼬운 눈초리로 쳐다보다가 두 눈에 눈물이 글썽해서 아무말없이 인력거를 타고 학교로 떠났다.

집을 떠나 학교로 온 도정은 마치 조롱속에서 놓여나온 새처럼 신선하고 자유로운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수 있었다. 그는 책읽기를 좋아했고 문예작품을 더욱 즐겨 읽었다. 책은 그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동경을 북돋아주었다. 그는 환상을 즐겼다. 그의 환상은 드넓은 바다와 먼 하늘가로 날개를 펼치군 하였다. 책을 많이 읽을수록 그의 생각은 더 많아졌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전과 다름없이 모든것에 대하여 뻥담 하였고 계속 침묵을 지켰다. 그는 학급동무들중에서 다만 진위여라는 아이만을 좋아했다. 그것은 진위여가 자기를 따듯하고 정답게 대해줄뿐만 아니라 불행한 자기 처지를 동정해주면서 열정적으로 고무해주기때문이었다.

그들은 둘도 없는 다정한 벗이 되었다.

1931년, 림도정이 고졸졸업을 두어달 앞둔 때였다.

어느날 오후 집에 들렀다온 림도정은 침통한 얼굴로 교실에 들어앉은 채 반나절동안 꼼짝하지 않았다. 많은 학생들은 의아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학생들은 그에게로 달려와서 물어보는 것이었다.

“도정아! 무슨 일로 어머니가 집으로 불렀던? 왜 그래?”

진위여는 도정의 옷소매를 붙잡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하였다.

“도정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러나 림도정은 목석처럼 멍청하니 앉아있을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몇 녀학생들이 깔깔 웃어대자 도정은 마치 꿈속에서 소스라쳐 깨어난 듯 눈을 비비며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들은 왜 웃니? 남을 놀려대지 말어!” 하고 말하고 도정은 일어나 나왔다.

그의 뒤를 따라 진위여도 학교 서쪽에 있는 서하천에 이르렀다.

둘은 나란히 서서 걸었다. 말없이 걷기만 하던 림도정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머리를 들고 멍하니 진위여를 쳐다보았다.

“위여야, 난 학교에 다닐수 없어!...” 하고 말하는 그의 얼굴색은 류달리 창백하였다.

“아니 왜? 도정아, 니네 어머니가 너를 집에 불러들이더니 무슨 일이야?”

감정이 예민한 처녀애는 벗의 고통에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는 오히려 당사자보다 더 초조하고 불안해하였다.

도정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서하천 수림속에 이르자 그들은 강가에 늘어진 수양버들에 몸을 기대었다. 도정은 금빛으로 반짝이는 강물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기만 했다. 한동안 침묵만 지키던 도정은 비로소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집이 파산됐어. 아버진 토지소유권문제로 재판하다가 패가망신하고는 동북에 있던 땅을 어머니 몰래 죄다 팔아 첩과 같이 달아났다. 이제 내가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 됐지...”

“뭘? 네가 재산이라고? 네가 돈이란 말이야?”

“어머니는 나보고 돈주머니가 되라는거야. 나를 오란전 판게 아니고 나를 부자집에 시집을 보내서 그 덕으로 자긴 호강하겠다는게 아니겠니. 그래 난 딱 잘라 거절하고 어머니와 아주 헤어지고말았어.”

“아니 이 일을 어쩔담?” 하고 진위여는 도정의 손목을 꼭 쥐며 울상을 했다. 하나 도정은 침착하게 진위여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위여야, 걱정말아! 어쨌든 난 굴복하지 않을테야. 그래두 끝내 안되면 죽고말지 뭐!”

그후부터 서봉영은 딸에게 학비를 대주지 않았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위협하여 도정을 굴복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도정은 굴복하지 않았다. 곧 학교를 그만두고 살길을 찾아 떠나려 하였으나 여름방학도 아닌데 어디로 갈수 있단 말인가? 몇몇 마음이 무뎠던 동창들이 매달 밥값을 치러주어 그는 간신히 마지막 두달 공부를 끝마칠수 있었다.

이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그는 묘연한 희망을 품고 침울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갈 차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어머니가 그냥 고집을 부린다면 공부를 더 계속할수 없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었지만 대학에 가려는 그의 희망은 열렬하였다. 그러나 그 사납고 모진 어머니가 마음을 둘릴수 있을는지?

그는 어쨌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는 문학을 좋아할뿐만아니라 음악도 무척 즐겨했다. 이번 방학에도 그는 생황, 피리, 통소, 월금, 행금 등 여러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갔다. 제일 귀중히 여기는 나비표 하모니카만은 호주머니속에 들어있었다. 그는 어테를 가나 악기들을 항상 지니고 다녔었다. 그래서 동창들은 그에게 두가지 별명을 지어주었다. 듣기 좋은 별명으로는 “피리선녀”였고 나쁜것으로는 “악기점”이었다. 공부가 끝나면 그는 줄창 혼자서 악기를 불기도 하고 타기도 하였다. 그럴 때 그를 본 사람들은 저자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악기소리를 듣기만 하면 그의 우울한 눈에는 갑자기 기쁨의 빛이 떠돌았고 어둡고 무거웠던 그 낮색은 삽시에 천진스런 애기처럼 밝았다. 물론 그것은 반년전 일이다. 생활에서 뜻밖에 변화가 생긴후부터 그는 이런 물건들을 그리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웃으면서 묻곤 했다.

“‘피리선녀’야, 왜 요즘엔 ‘악기점’을 열지 않니?”

그때마다 도정은 그저 같이 웃어보일뿐 아무말없이 그 자리를 피하곤 하였다.

인력거는 울퉁불퉁한 길을 천천히 굴러갔다. 그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불안해졌다. 먼저번 어머니의 그 사나운 물결, 바로 소작농들에게 채찍질하며 굴던 악착한 물결이 그냥 눈앞에 매달려 어물거렸다.

“요 개 같은 년아! 어미가 무엇때문에 너를 키운줄 아냐?”
 “요 불효한 계집년, 암치 없는것! 말을 안 들겠으면 썩 나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오싹 몸서리를 치며 누가 빼앗기나 하는듯 가슴앞에 놓인 생활을 꼭 껴안았다. 그러나 그가 인력거에서 내려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의 사태는 그의 상상밖이었다. 손님들과 마작을 놓고있던 어머니는 도정이 온것을 보자 반가이 손목을 잡으며 웃음을 지었다.

“애야, 인제 돌아오냐? 더운데 오느라고 무척 혼났겠구나!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 네가 공부를 잘한다고 다들 칭찬이시다!”

(어머니가 억지로 시집을 보내진 앓을 모양이다. 혹시 나한테 공부를 더하라고 학비를 대줄지도 몰라.)

도정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언제나 그는 “모든것은 다 천하고 공부만이 고상하다.”고 생각했다. 만일 공부를 더 할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것인가! 그래서 그는 손님들에게 머리를 약간 숙여 인사까지 하였다. 지난날에는 이렇게 집에 온 도박군, 아편쟁이들을 몹시 역겹게 여겼지만 오늘은 그들이 그닥 눈에 거슬려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작탁자걸에 서서 손님들에게 수집은 웃음을 띠여보였다.

“이분이 호국장이시다.” 하고 어머니는 웃자리에 앉은 양복차림의 누렁고 여원 남자를 소개하고는 이어 그 둔덕진 눈을 가늘게 하며 그 남자에게 “애가 바로 우리 딸 도정입니다.” 하고 겸손한, 그러면서도 자랑기 어린 웃음을 지었다. 이때 어딘지 어색한감을 느낀 도정은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다음은 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들리지 않았다.

도정은 집에 있으면서 사범대학 입학시험을 치렀다. 매우 자신있게 시험을 치르고난 그는 무한히 기뻐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기에게 결혼을 강요하던 일, 그리고 온밤 그칠줄 모르던 마작소리, 천한 남녀간의 상소리, 양간한 류행가소리, 돈 잃은 사내들의 성난 욕설... 이 모든것은 도정으로 하여금 여전히 빈민과 고통속에 잠기게 하였다. “남편 없고 파산된 집에서 저 모양으로 타락을 하다니!” 마흔여덟살의 서봉영이가 매일 하루같이 몸치장을 하고 사내들앞에서 갖은 아양을 다 떠는 그 꼬락서니를 목격하는